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구약신학, 1차 세션, 서론 및 방법론

© 2024 Tiberius Rata 및 Ted Hildebrandt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그의 구약 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 및 방법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티베리우스 라타입니다. 저는 그레이스 칼리지 앤 신학 대학에서 구약 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늘은 구약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학문의 서론과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구약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사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것처럼 구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신학을 해야 하지만 그것은 구약 신학입니다. 다음은 이전 학술 연구에서 몇 가지 정의입니다.

성경에 포함된 신학은 꽤 명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스는 주해 신학의 한 분야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다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 용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신학은 주해 신학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본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해를 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본문에 강요할 수 없으며,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단지 신앙과 실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에벨링은 성경 신학을 성경과 일치하는 신학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신학이라는 개념은 종교 개혁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성경 신학이라는 용어는 17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는 성경 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의 작품 제목은 *A Discourse on the Proper Distinction between Biblical and Dogmatic Theology and the Correct Delimitation of Their Boundaries* 입니다. 그래서 가블러는 신학이 행해지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걸 보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신학과 교조적 신학, 때로는 우리가 체계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블러가 한 일은, 다시 한번 성경 신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그가 성경 신학에 순전히 역사적인 성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체계신학자들이 그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고 창세기에서 구절을 따서, 말라기서에서 구절을 따서, 시편에서 구절을 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 신학의 근원이라고 가블러는 말합니다.

그는 성경 신학은 성경의 개별 문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것들을 역사적 맥락에 두고 표현 형식을 관찰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해 신학을 다루는 지점입니다. 먼저 주해로 시작합니다. 성경과 본문을 보고, 그런 다음 역사적 맥락을 보고, 그런 다음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고, 그런 다음 신학으로 기록합니다.

가블러 자신은 성경 신학이라는 단어가 진정한 성경 신학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성경 신학은 개별 문서에 대한 해석과 다양한 표현에 대한 비교를 의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신학이 해석과 체계적 신학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계적 신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당신은 성경 신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보고 그 계시의 진행을 살펴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역사적 요소는 가블러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것을 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을 창조주로 볼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지 봅니다. 이제 당신이 책들의 연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글썄요, 우리는 먼저 욥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먼저 욥기부터 시작하세요. 욥이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창조주로서의 신은 성경 신학과 구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신은 자신을 창조주 신으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경 신학의 아이디어를 이어가는 다른 학자들이 있는데, 헤르만 술츠, 게르하르트 도스 보스, EJ 영과 같은 19세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신학을 보고 인용했는데, 이는 신의 계시 활동, 그가 말스한 사람들의 영적 경험, 기록된 말씀의 특성에 비추어 신이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다루는 성경 해석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이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는 천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과 역사적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블러는 체계신학을 위한 우리의 연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체계신학과 성경신학이 성경 자료를 다루는 방식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본문을 다룹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 시작하는 한,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제, 체계신학은 예를 들어, 인간 교리, 신 교리, 죄 등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전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성경 신학은 족장들, 모세, 그리스도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성숙되는 특정 단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행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체계 신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주석을 합니다. 성경 신학자와 체계 신학자 모두요. 그들은 성경 주석을 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더 역사적이고 진보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더 잘 알려진 사람 중 하나는 GE Wright로, 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예를 들어 기적 때문에 성경의 일부 내용을 거부하는 독일 학파에 반발합니다. 신학자들은 "탈출을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탈출은 실제로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GE 라이트는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적 행위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을 사건의 역사성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폰 라트, 그는 우리 신학에 맞지 않는 몇 가지 말을 했지만 구약성경이 역사서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역사 신학에 근거합니다. 이제, 그가 잘못된 부분은, 그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일어난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글썄요, 문제는 때때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믿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런 성경 신학의 개념을 따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테리 앤은 성경의 역사보다는 문학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립 고블러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반박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역사적 역사성이 아니라 문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그들은 성경 사건의 역사성에 대해 쓰고 있거나 말하고 있는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이 아름다운 문학 책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카이저는 역사가 계시의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신을 알 수 있는 기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베스터만과 클레멘스에 따르면, 성경은 역사적이고 지적인 차원을 지닌 문학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항상 사건의 역사성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신학의 역사적 요소나 역사적 차원을 인정합니다. 이제, 구약 신학의 다른 모델들이 있습니다.

현재 모델 중 일부는 예를 들어 유형적 모델, 폰 라트, 아이히로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히로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신학을 구원의 역사라는 개념인 하일스게시히테 의 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성경 신학에 매우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Heilsgeschichte , 즉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프레이는 이 서사적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주의 신자로서 우리는 이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프레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린드버그는 문화-언어적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는 실제로 후기 자유주의 신학, 즉 서사 신학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는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서사적 표현,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독교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보면 문화와 다양한 배경 문제, 문법, 문화의 관행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는 그것이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트발트는 사회학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 실제로 마르크스주의 분석에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전통적인 정복이 아닌 가나안 사회 내의 농민 반란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것을 과거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하는 매우,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교 성경 신학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구약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차이점은 기독교 학자들은 메시아적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반면, 유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유대인 랍비와 함께 로마서 수업을 듣는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로마서에 대한 수업 중 가장 좋은 수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끝날 무렵 구약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랍비가 “음, 바울이군요. 저는 믿지 않아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 믿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고 믿는다. 성경 신학: 교부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성경 신학을 실천했고, 신앙의 역사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아니면 3 세기에 아리아니 우스,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가 그랬고, 위대한 개혁가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랬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데이터를 체계화하는 위대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작품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에는 성경 신학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은, 구약의 중심이 있는가? 구약의 중심이 있는가? 구약 전체의 중심이 있는가? 중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심이 있다고 제안하는 학자 중 한 명은 발터 아이크로프트입니다. 물론, 그는 오늘날 우리의 복음주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구약이 실제 교리를 거의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계적 신학자들을 매우 비판했는데, 그들이 교리 신학이나 교의적 신학의 개요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연구한 다음 본문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신과 사람, 신과 세상, 신과 인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크로프트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학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을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아이크로드가 옳은 또 다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언약이라는 개념에 많은 강조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언약이 구약 신학의 중심이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다음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와 동의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께서 우리와의 관계, 주님의 만찬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새 언약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인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이크로트와 동의하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언약의 중심성을 설명하고, 시나이산에서의 모세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는 다른 모든 구약의 주제를 하나로 모읍니다. 구약의 언약은 실제로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저는 그의 가르침이 구약 연구, 특히 언약 연구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오도루스 C. 브리젠 은 매우 중요한데, 그의 주요 사상은 신과 인간의 교감이었습니다. 아이크로드가 언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브리젠은 신과 인간의 교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와 함께 동산의 시원한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이 신앙과 계시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현실과 기독교회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구약 신학은 이스라엘 종교 역사와 함께 학문의 별도 분야로서 고유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순수한 구약 신학만 할 수 없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신약도 살펴봐야 한다는 이 성경-신학적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는 신약과의 연결은 우연이 아니라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GE 라이트는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의 경기장입니다.

그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중심적이고 형성적이라는 Eichrod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 역사가 고고학과 주해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고고학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물론, 당신은 그것을 주해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주해는 실제로 첫 번째 단계여야 합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를 앞서 언급했고, 그는 또 어떤 것은 옳게 했고, 어떤 것은 틀렸습니다.

그는 구약 신학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전파된 일련의 신앙 고백이라고 주장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그의 취급은 매우, 매우 좋은데, 그가 선지자들에게 많은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heilgeschichte 접근 방식,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구약 신학의 목적은 신앙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폰 라드와 체계 신학자들은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히려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이 야훼에 대해 직접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가 잘못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믿었는가입니다. 글썄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믿거나 경험한 것에 우리의 신학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이 일어났다고 믿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폰 라드는 아이크로드와 반대하여 구약에는 신학적 중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네, 언약은 중요한 측면이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또 다른 구약학자인 월터 지멀리는 열쇠의 열쇠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와 동의하며 구약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에도 많은 구약 학자들이 그렇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과 역사적 경험 사이에 특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역사가 그 자체로 야훼의 계시적 말씀이 되었다는 잘못된 가정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는 폰 라드에 반발합니다. 역사는 사건의 과정에서 야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재앙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듣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어떤 것은 옳게 말하고 어떤 것은 틀리게 말합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구약 신학의 구조는 개념보다는 사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성서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에게는 다시 한번 진실 이야기입니다. 축복에 대한 강조.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쇠, 구약 신학의 중심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8에서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은 성경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축복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원과 달리 축복은 항상 일어나고 온 세상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개혁자들이 나중에 일반 은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용하자면, 그것은 조용하고 끊임없이 흐르며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순간이나 날짜로 포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1, 2, 3가지 요점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우리에게, 때때로 베스터만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간의 신비로움을 허용하고,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구약 신학과 모든 신학에서 약간의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간과 날짜로 행하시는 일을 포착할 수 없다는 이 아이디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매우,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당시, 브레바드 차일즈는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두 권의 세트를 내놓았고, 80년대와 90년대에 이 정경 분석을 개발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구약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구약의 역사성이나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많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그가 성경 신학과 교회 신학이 진공 상태에서 발전되지 않았고, 상아탑에서 발전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발전과 함께 발전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경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정경을 교회가 받고, 수집하고, 해석한 자료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경이 단지 받아 수집한 텍스트일 뿐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교회의 해석된 자료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교회를 끌어들이고, 교회의 해석 없이는 신학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일어난 직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초기 교회의 발전 이후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의 생각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통이 계속 기능하는 물질적 신학적 맥락을 확립합니다.

정경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정경이라는 개념을 얻게 되는데, 전통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 컬렉션이 문학적, 텍스트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경 텍스트가 성경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1세기나 2세기나 그 무엇이든 이런 글들이 다 있고, 그것들은 성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그것들이 정경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신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오래된 회중의 증언이 가장 초기의 사도적 전통과 역사적 연속성을 주장하고 보편 교회의 가장 포괄적인 지리적 증언을 대표한다는 것이 책의 권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회 전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구약은 신약과 관련하여 이해되지만, 신약은 구약과 별개로 이해될 수 없으며, 모든 구약 학자들은 이에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신학의 주요 과제는 두 가지 매우 다른 목소리를 지닌 전체 기독교 성경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그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목소리이고, 그가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한다면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언서 사이의 불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어딘가에 행복한 중간 지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신학자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구약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신약은 때가 차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루가는 에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약간 당황해하는 두 제자를 만났고,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마음이 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겪으시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오로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마가복음부터? 아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그는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아직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구약을 읽는다면, 우리는 요점을 놓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신학이나 교의 신학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신성한 경전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정경 비판은 다시 한 번 브레바드 차일즈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작품에 대한 요약일 뿐입니다.

신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했습니다. 종교적 글은 신의 행위에 대한 충실한 증언으로 생겨났습니다. 종교적 글은 신앙 공동체에서 규범으로 다양한 정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널리 받아들여진 기록들은 수정되고, 편집되고,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전달하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정경으로 선언될 만큼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즉, 그것들은 모든 미래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의 사실과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신학의 소개와 방법론의 끝입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그의 구약 신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소개와 방법론입니다.